

[강국의 길에서 분발하고 새 로정에서 활보하자]

새 중국 창건 75년래

우리 나라 대외무역 도약식 발전



8월 22일, 산동항구 일조항 컨테이너부두에서 루선이 정박하여 작업하고 있다. (무인기사진)

/ 신화넷

대외무역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엔진이자 국내외 이동순환을 소통시키는 관건적인 중추이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은 세계 각국과 함께 경제 글로벌화의 대세에 순응하는 한편 기회를 공유하고 함께 혼의하고 협력하며 함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세계경제성장을 추진하고 각국 인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힘을 기여할 용의가 있다고 표했다.

새 중국 창건 75년래 우리 나라 대외경제무역은 도약식 발전을 실현하고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대외무역 규모가 잇달아 새 기록을 경신하고 발전 품질이 안정적으로 격상되었으며 고품질의 '도입'과 고수준의 '진출'이 동시에 발전하고 지역간 경제협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며 대외개방 수준이 부단히 제고되었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나라는 대외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개방의 범위와 분야, 차원을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세계경제와의 연계가 더 밀접해지고 고수준의 대외개방의 새 구도가 가속화되었다.

9월 18일, 제7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1차 입국 전시품이 일본에서 상해 포동국제공항으로 운송되고 상해 해관의 촉수심사를 거쳐 입국했다. 전시품은 중국에서 최초 전시하는 전동 개념의 삼륜차이다. 현재까지 100여

개 국가와 지역의 근 3,000개 기업이 제7회 수입박람회와 전시 계약을 맺었다.

수입박람회 전시부 경리이며 자동차전시구 책임자인 오주혜가 소개한 대의하면 올해 자동차전시구는 15개의 자동차 브랜드를 모아 지속가능 발전과 미래 출행에 초점을 맞춘다. 20여개 500강 선도기업이 전시회에 참가할 전망이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업들이 참가하고 있다. 현장 90%의 전시 차종이 신에너지 자동차로서 친환경 저탄소 기술에 대한 업계의 깊은 중시를 보여주게 된다.

데이터에 따르면 6년래 수입박람회는 2,400여가지 대표성이 있고 최초로 되는 신제품, 신기술, 새로운 봉사를 전시하였는데 의향 거래액이 4,200억 달러를 넘었다. 중국국제수입박람회,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 중국제조소비품박람회, 중국국제봉사무역교역회, 중국국제공급망촉진박람회 등 일련의 국가급 전시회들은 우리나라가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호혜상생의 플랫폼이 되었을 뿐더러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들의 동경을 더 잘 만족시키고 있다.

해남 박오 락성국제의료관광선행구에서 백반증 환자 장위는 출국하지 않고 고장 선진적인 치료방법을 받을 수 있어 병세가 호전을 보였다. 약 사용을 통해 장위의 70%의 얼굴 피부가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었다.

당면 우리나라는 고수준의 개방으로 봉사무역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봉사무역은 1982년 개혁개방 초기의 40여억 달러에서 2023년의 9,331억 달러까지 발전되었고 봉사무역의 디지털화, 지능화, 친환경화 진척도 부단히 가속화되었으며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었다.

상무부 연구원 국제봉사무역연구소 소장 리준은 신흥 시장밀집형 봉사무역이든 관광봉사무역이든 모두 비교적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출국 관광과 국내 관광을 포함한 관광봉사무역이 빠른 성장세를 유지한다고 표했다. 리준은 이는 중국 봉사무역의 전반적인 빠른 성장세를 뒤집어치우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표했다.

새 중국 창건부터 20세기 70년대까지 우리나라 대외무역은 발전 토대가 아주 박약했고 수출입 규모는 낮은 수준에서 맴돌았다. 1950년, 화물 수출입 총액은 11억 3,000만 달러 밖에 되지 않았고 1978년까지만 해도 206억 달러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개혁개방이 부단히 심화됨에 따라 대외무역 발전은 날로 호전되었다. 2001년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한 후 우리나라

제 글로벌화 과정에 빠르게 융합되고 대외무역도 빠르게 확장되었다.

당면 우리나라는 150여개 국가와 지역의 주요 무역 동반자로 되었다. 화물무역 규모는 2023년의 5조 9,000억 달러까지 도약했고 화물 수출입 총액이 국제시장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8년의 1% 미만에서 2023년에는 12.4%까지 올라 련속 7년째 전세계 화물무역 최대국 신분을 보유하고 있다. 수많은 초급 제품을 수출하는 것으로 공업품 수입을 맞바꾸던 국면은 이미 역전되었다. 첨단기술, 고부가가치, 친환경 제품이 전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고 대외무역 경쟁에서의 새 우세가 형성되었다.

국내 모 유명 신에너지 자동차기업의 브랜드 및 공공관계처 총경리 보좌관인 리호는 많은 중국 브랜드들이 해외 포석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중국 신에너지 브랜드 중에서 반드시 진정한 국제적 영향력을 갖춘 브랜드가 탄생되어 세계 신에너지 자동차 업계의 무대에 오를 것이라 확신한다고 표했다.

무역량의 지속적인 성장과 무역 구조의 지속적인 최적화에도 우리나라의 무역 동반자도 더욱 다양해졌으며 특히 신흥시장국과의 무역 관계가 날로 긴밀해지고 있다.

18차 당대회 이후 우리나라의 고급 자유무역구 네트워크는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자유무역 동반자의 무역액은 전체 대외무역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2023년, '일대일로' 공동건설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입 비중은 46.6%로 증가하였고 중남아메리카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수출입은 각각 6.8%와 7.1% 증가했다. '일대일로' 공동건설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국제 공공제품과 국제협력 플랫폼이 되었다.

미래를 전망하면서 상무부 부장 왕문도는 현재 백년 변곡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각국이 직면한 발전 난제도 뚜렷이 많아졌다며 개방협력과 협력 상생만이 정확한 선택이라고 표했다. 그는 새로정에서 고수준의 대외개방이라는 것은 바로 케이스를 더 크게 만들고 협력 목록을 확장하며 세계무역 기구 개혁에 전면적으로 참여하고 자유무역의 '친구방'을 확장함으로써 개방형 세계경제 건설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중국조선어방송넷

12월부터 최빈국에 무관세 대우 적용

12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공고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최빈국에 대한 일방적 개방을 확대하여 공동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2024년 12월 1일부터 원산지가 중국과 수교한 최빈국인 모든 세

목 제품의 적용 세율을 0으로 하는 특혜세율을 적용한다. 그중 관세할당량 제품은 할당량내 관세율만 0으로 낮추고 추가 관세율은 그대로 유지한다.

/ 인민넷 - 조문판

향향, 세계 인재 경쟁력 순위 9위

향향의 인재 경쟁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향향 특별행정구정부에 따르면 스위스 로잔 국제경영개발원 (IMD)이 발표한 《2024 세계 인재 경쟁력 순위 보고서》에서 향향은 2023년 16위에서 9위로 대폭 상승했다. 2016년 이후 처음 다시 10위권내에 진입했다.

향향은 인재 경쟁력 분야 3개 부문 순위에서 모두 2023년보다 상승했다. 준비성 순위는 2023년 6위에서 4위로 올랐고 투자·발전 분야는 15위에서 13위로, 매력도는 32위에서 28위로 향상됐다.

각 지표에서 향향의 리과 졸업생

비율이 세계 1위를 차지했으며 재무능력, 경영교육, 경영진 보수는 세계 5위권 안에 들었다.

향향 특별행정구정부 대변인은 향향이 세계 10위권에 들었다며 이는 특별행정구정부가 교육 및 인재 유통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향향의 각종 인재유치 계획에는 총 36만여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그중 약 23만건이 승인됐으며 같은 기간 각 인재 입경 계획을 통해 향향으로 들어온 인재는 15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신화넷

AI 연구 성과 최다 기관 10개 중 6개 중국



12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글로벌 인공지능 서밋 (峰会) 2024에서 '대화 로보트'와 교류하고 있는 관람객.

중국·독일·영국·프랑스 순으로 상위 5위를 차지했으나 중국과 미국 간 격차는 빠르게 줄고 있다.

한편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자연지수에서의 AI 연구 성과가 가장 많은 상위 10개 기관으로는 중국과 학원, 하버드대학교, 북경대학, 청화대학, 절강대학, 매사추세츠공과대학, 독일 막스플랑크연구회, 헬름홀츠연구협회, 중국과학기술대학, 상해교통대학이다.

2023년 기준 미국은 AI 연구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 신화넷

동유럽·중동 바이어 몰려온다

하북서 만든 려행가방 수출 불티

하북성 보정시 백구 (白沟) 신성에 최근 동유럽, 중동 등지에서 바이어들이 몰려들고 있다. 이곳은 중국 최대 려행가방 (캐리어) 생산·판매 기지 중 하나로 중국내 시장 점유율이 약 28%에 달한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세계 195개 국가(지역)로 팔려나간다.

진보로 (津保路, 천진과 보정을 잇는 국도) 동부물류센터 근처에는 상품을 실으려 온 화물차가 길게 늘어서 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화물차 행렬 뒤에는 지역 특색의 산업 클러스터 (集群)가 자리하고 있다. 관련 종사자만 200만명이 넘는다. 그들은 매년 8억개의 캐리어를 만들어 세계로 수출한다.

세계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된 상황에서도 올 상반기 백구의 캐리어 수출 규모는 17.7%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수출액은 71억 5,400만 원을 기록했다. 그 비결은 뭘까?

“과거에는 브랜드나 품질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 마케팅은 생각하기도 어려웠고 소규모 공장의 리익은 무척 낮았다.” 백구 봉걸가죽제품회사 창업자 왕금룡은 캐리어공장 대부분

이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OEM)이 었다면서 대부분 열심히 노력해도 '남 좋은 일만 한 셈'이었다고 말했다.

2003년 이후, 백구 캐리어 기업들의 브랜드 의식이 점차 생겨나면서 5년 만에 1,400여개 자주 브랜드가 탄생했다.

백구신성관리위원회 부주임 김설비는 기업의 브랜드 구축을 돋기 위해 현지에서는 정기적으로 10대 브랜드를 선정하면서 기업의 하북성 유명상표, 하북성 명품 브랜드 신청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수 브랜드 구축으로 판로가 점차 넓어지고 제품의 업그레이드도 점차 빨라졌다. 이제 인구 6만여명의 작은 마을은 캐리어 원자재 공급, 제품 디자인, 가공·제조·판매 등을 아우르는 완전한 산업사슬을 갖추게 됐다.

여기에 과학기술이 더해지면서 새로운 비상을 위한 '날개'를 달았다. 최근 수년간 전자상거래 라이브 방송이 백구지역에서 성행하면서 기존의 도매상들이 잇달아 '공장 라이브 방송' 간판을 내걸었다.

이제 이곳에서는 매일 1만건에 가까운 라이브 방송이 진행되며 20여종

의 제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한 이란 바이어가 6일 백구신성에서 현지 기업의 백팩과 여성용 가방을 문의하고 있다.

/ 신화넷

면서 “9월달에는 일본과 한국을, 10월달에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구는 제품의 스마트화 디자인과 생산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2022년, 백구 캐리어 산업 디지털화 전환 지원센터가 당시에 건설돼 플랫폼내 2만여개 기업에 디지털 씨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들은 '클라우드 디자인' (云设计) 온라인 보

조 디자인 시스템과 디자인 정보 수집 시스템을 통해 최신 런칭 추세를 파악하고 인공지능 (AI) 을 활용한 디자인과 3D 프린터로 모의 완제품을 만들 어낸다.

/ 신화넷